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2023

202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2023
Annual Report

예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목차

기관소개	3
한눈에 보는 2023년 주요 성과	4
사업성과	5
기관운영	21



기관 소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2012년도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예술인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예술활동에 전념하며,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환기하고 예술인이 우리 사회에 기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핵심가치

H

조화·협력
Harmony

O

열린사고
Open-m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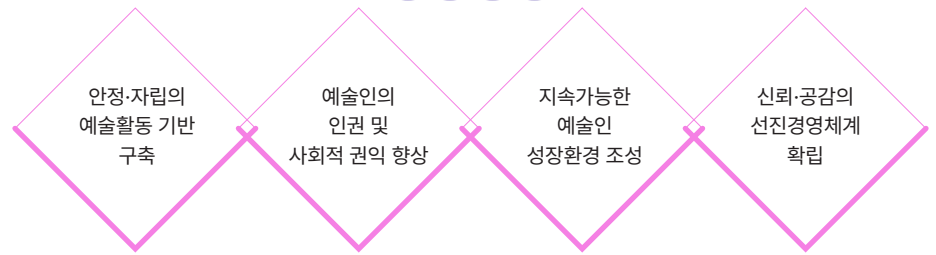
P

전문가 지향
Professionalism

E

윤리·공정
Ethics&Fairness

전략목표



전략과제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예술활동 지원 확대 * 예술인 맞춤형 생활 안전망 강화 * 뉴노멀 대응 창작자립기반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예술환경 조성 강화 * 예술인 사회보장체계 확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복지 거버넌스 활성화 *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가치 실천 고도화 * 합리적인 조직 및 인사운영 |
|---|---|--|---|

한눈에 보는 2023년 주요 성과



1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23.6.30.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3년, 재단은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을 시행했습니다. 특히나 2020년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예술인이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유효기간을 코로나19 기간만큼 자동 연장해 많은 예술인들이 멈춤 없이 예술인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예술 분야, 실적제출 기간에 따라 장르별로 상이했던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여 예술인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예술활동증명 누적 완료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예술인은 꾸준히 직업예술인으로 활동했음을 인정하여 더 이상 재신청할 필요 없이 평생 동안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도록 개선했습니다.




2 큰 변화를 맞은 예술인패스

공연, 전시, 생활 속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인 예술인패스 또한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예술인패스 카드의 유효기간을 없애 한번 발급받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이라도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했거나 예술인패스를 발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현재 만료되었더라도 예술인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좀 더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예술인패스 체크카드를 런칭해 전용 할인물, 산재보험 가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p>예술인패스 카드 발급 대상 (‘23.9.4.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 번이라도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유효자, 만료자 모두) *신진예술인 포함 ② 한 번이라도 예술인패스를 발급받았던 사람(현재 만료되었더라도 재발급 가능) ③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④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3 예술인 주거공간 지원사업 시작

2023년, 재단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위한 주거공간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에 매입한 주택을 예술인의 활동특성을 반영한 특화형 임대주택으로 조성하여 시중 가격의 5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 입주자 대상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4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 및 재단 사무공간 이전

2022년 9월에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별도의 상담·신고접수, 조사 공간이 부재하여 어려움이 있었지만, 2023년 12월 19일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개소하며 독립된 공간을 갖추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예술인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피해구제 단계에 이르기까지 권리침해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통합 창구인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는 서

울역과 연결된 서울스퀘어 빌딩 3층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높고, 사건 당사자의 분리를 고려한 독립된 상담·조사실과 사건심의·의결 공간을 별도로 갖추고 있습니다.

개소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영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계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개소식에서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통해 예술인들을 권리침해 행위로부터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문체부도 불공정 계약 등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때 예술인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나아가 권리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같은 공간으로 이전해 심리상담, 소송지원 등 재단이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들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소식 사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예술인의 직업 사이클과 특수성을 고려해 창작을 위한 준비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일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디딤돌과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위한 창작씨앗,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인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조회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지원합니다. 창작디딤돌의 경우 격년으로 1인당 300만원을, 창작씨앗은 생애 1회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3년 창작디딤돌을 통해 20,000명의 예술인을, 창작씨앗을 통해 3,000명의 신진예술인을 지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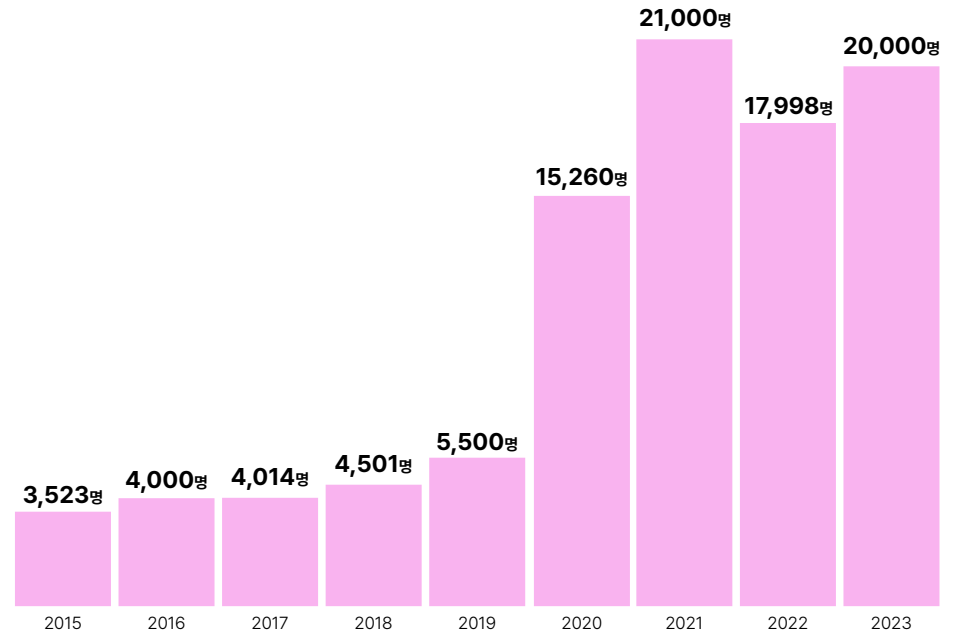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1인당 지원금

3,000,000원



지원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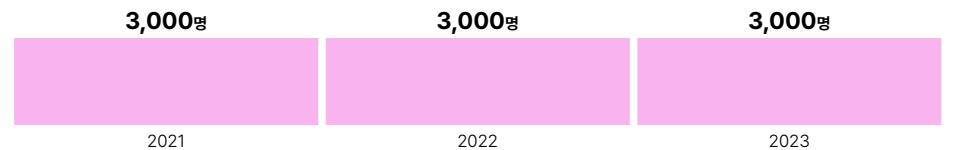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1인당 지원금

2,000,000원



지원인원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은 예술인과 사회(기업·기관 등)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예술인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 및 활동비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직무영역 개발을 통한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은 개인의 예술적 역량과 기업·기관의 이슈(니즈)를 접목하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업 주제를 선정하고, 활동 초기 탐색, 관찰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합니다. 이를 위해 재단은 6개월 간 리더예술인에게 월 140만원, 참여예술인에게 월 120만원의 활동비와 교육, 매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술로 사업은 공모를 통해 개별 선정된 기업·기관과 예술인이 매칭되어 활동하는 '협업사업', 기업·기관과 예술인이 사전에 팀을 이루어 참여하는 '기획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 문화재단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사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총 996명의 예술인이 200개 기업·기관과 함께 조직문화, 홍보·브랜딩, 콘텐츠 개발, 공간개선·활성화, 사회공헌, 지역사회 개발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예술협업활동을 전개했습니다.

2023년에는 예술로 사업의 책임멘토단을 도입하여, 예술로 '협업사업', '기획사업' 참여 팀과 멘토를 매칭해 보다 내실있는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총 5개 팀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여(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개, 기관장 4개) 사업 참여동기 및 협력활동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인당 지원금

리더예술인(약 6개월간 매월 활동비)

1,400,000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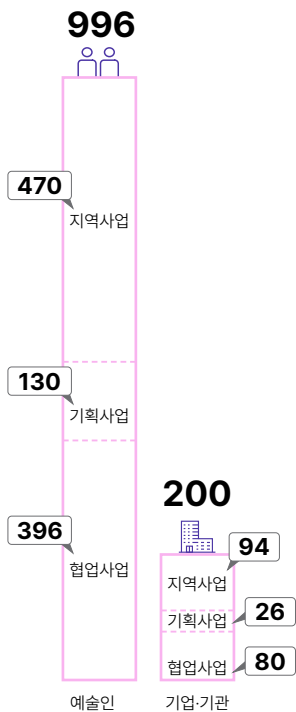
참여예술인

1,200,000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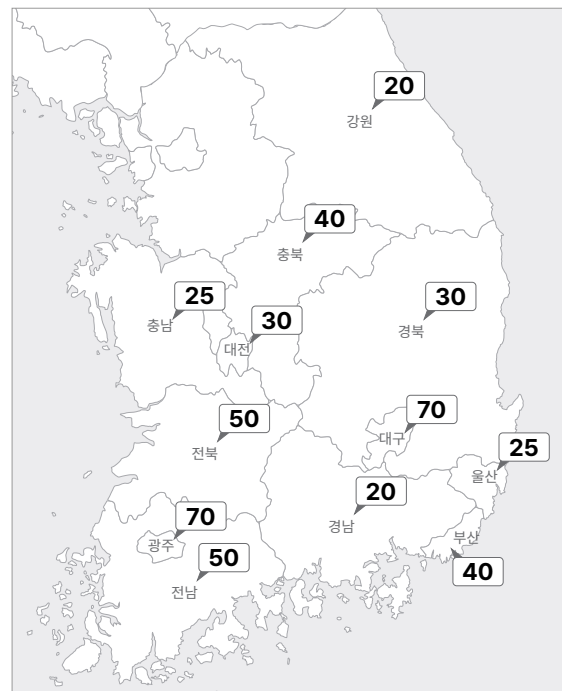


1인당 지원 내용

2023년 사업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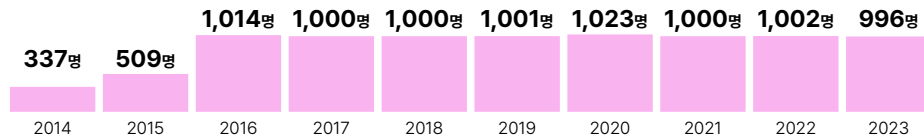


2023년 지역사업 참여예술인 현황



2014-2023년 누적 참여인원

8,882명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

신진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되어 2020년까지 예술인들이 사회적 역할의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에 신진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이 도입되며 사업대상 및 구조를 전면 개편하였고, 신진예술인이 현업예술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역량강화 및 공공지원 접근성 제고에 요구되는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온라인 강의와 멘토링 프로그램(기획서 작성법, 포트폴리오 작성법)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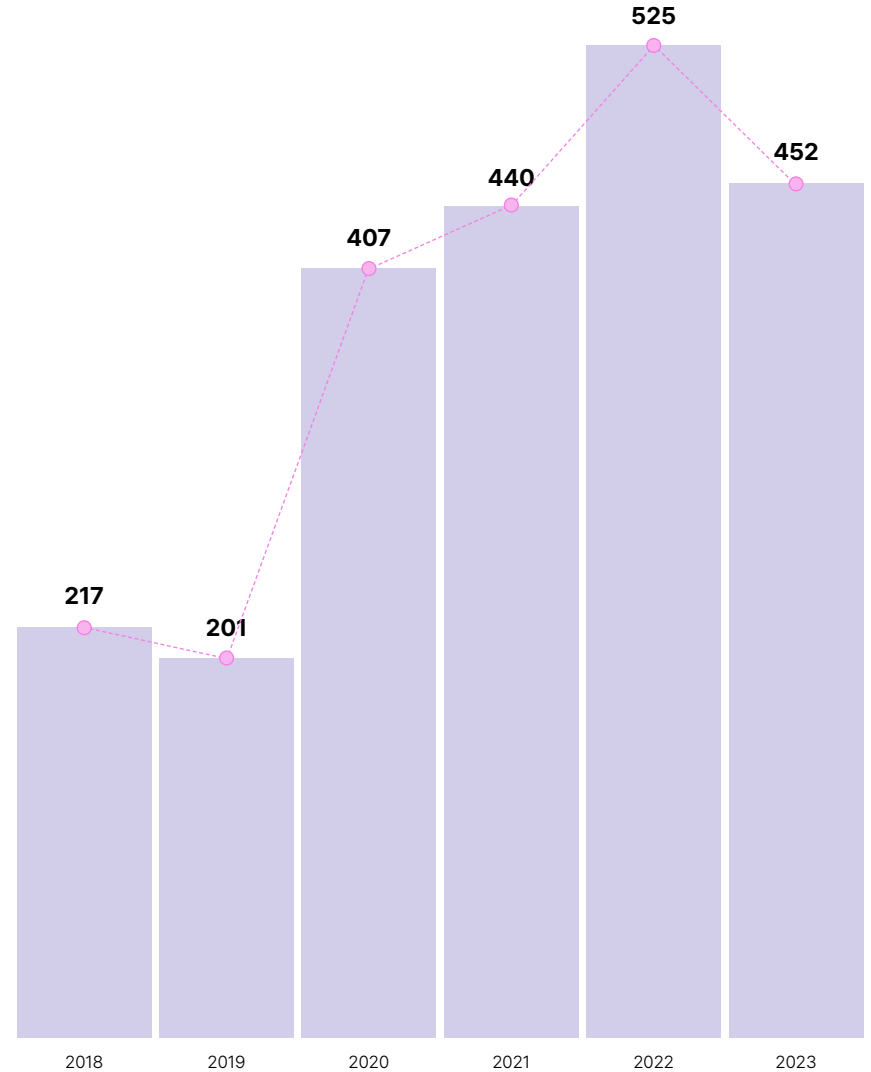
2023년에는 예비/현업 예술인 대상으로 <기획서 작성>, <예술과 공공지원>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86명의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기획서 작성법: 기획으로 예술하기>와 <포트폴리오 작성법: 나의 작업 아카이빙 정리법> 등 2개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멘토링 후속 프로그램으로 2박3일 네트워킹 캠프 <두드림, RAP>을 도입해 신진예술인 4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네트워킹 캠프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됐던 멘토링을 확장, 신진예술인 간 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사업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 누적 인원

(단위: 명)

2,242명



예술인 권리보장 환경 조성 / 예술인 신문고

예술인 권리보장 환경 조성 사업은 예술인 신문고 운영, 법률상담,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 등을 통해 공정한 예술생태계를 조성하여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예술인 신문고> 운영을 통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상 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를 상담·접수하고 있습니다. 출연료 미지급,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 성폭력·2차 가해로 인한 피해 등 총 169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하였으며 1,016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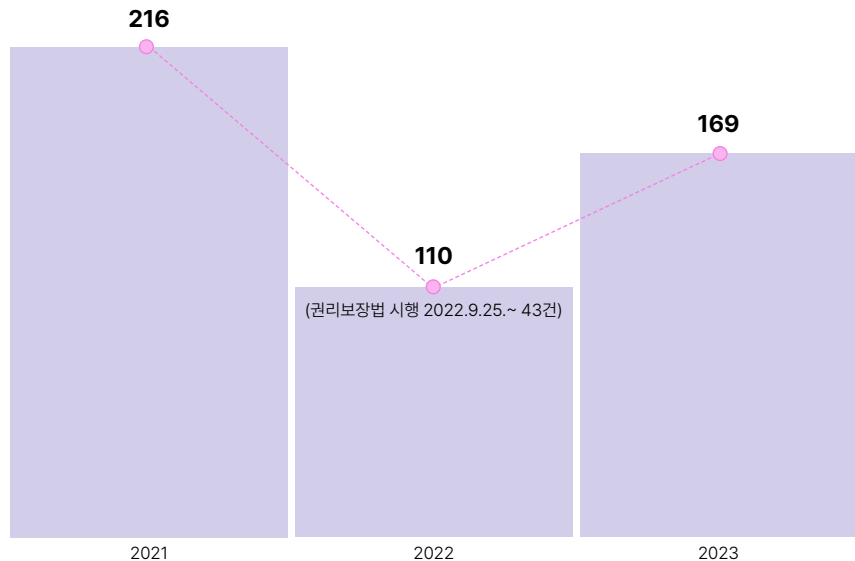
또한 2018년 6월 시작된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는 전용 유선상담창구(02-3668-0266)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56건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법률/심리상담/의료비지원 등)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3년 12월 19일에는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개소해 독립된 공간을 갖추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예술인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는 서울역과 연결된 서울스퀘어 빌딩 3층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높고, 사건 당사자의 분리를 고려한 독립된 상담·조사실과 사건심의·의결 공간을 별도로 갖추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술인권리보장 시스템(sinmungo.kawf.kr)을 개발·오픈하여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부터 신고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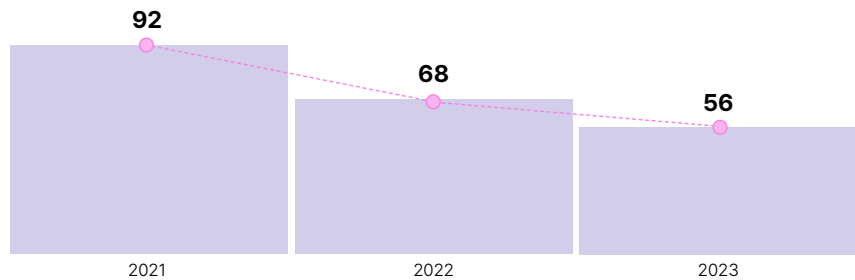
사업 운영에 더하여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더 많은 예술인 권리보장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웹툰, 카드뉴스 등 홍보물 7종, 실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예술인 출연한 영상 홍보물 5종을 시리즈로 제작하여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캐릭터라이선싱페어 등 예술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직접 예술인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리플릿 및 포스터 5종을 145개 기관 및 협단체에 배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캠페인 추진을 통해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노력과 중요성을 알리고 장기적으로 예술인들의 권리보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예술인 신문고 신고건수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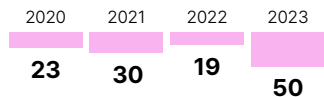
서면계약 체결 확대

재단은 예술계에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서면계약 체결 확대' 사업을 추진하여 구두 계약 및 무계약 등 예술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예술인들이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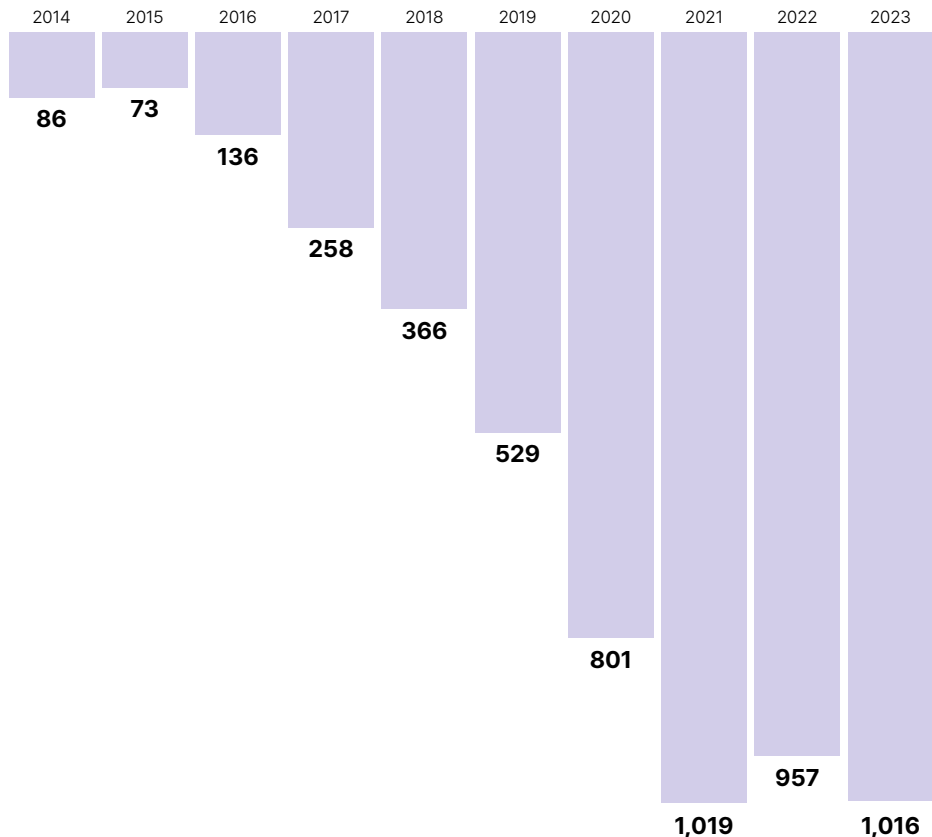
무엇보다 서면계약 신고·상담창구를 통해 예술인들이 겪는 계약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면계약 미작성 등 예술인들이 직면한 서면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았으며, 또한 이러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서면계약 상담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sinmungo.kawf.kr)으로 신고접수 창구를 통합하고 상담, 접수 과정에서 필요시 예술인 신문고 신고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3년 한 해 동안 총 1,016건의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예술인들의 권리보호에 앞장섰습니다.

더불어 서면계약 체결 확대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계약 체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전자계약 서비스를 문화예술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예술인들이 쉽고 빠르게 서면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면계약 위반 신고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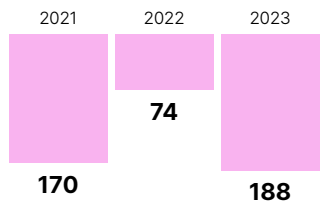


법률상담·컨설팅



(단위: 건)

전자계약 체결 지원건수 (단위: 건)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은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예술 현장의 무계약, 구두 계약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예술계 내 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사회구성원이자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건전한 계약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예술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재단은 예술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예술인, 예비예술인(예술대학교 및 예술중·고등학교 학생), 예술사업자를 비롯하여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계약 및 저작권,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예술 분야별 계약 교육인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특강을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형식으로 상하반기에 진행했으며,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온라인 동영상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더불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 양성에 이은 관리 운영을 통해 예술인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특강은 총 1,496명이 수료했고, 전국의 다양한 예술 현장에서 이루어진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을 통해 150회에 걸쳐 총 6,133명이 교육에 참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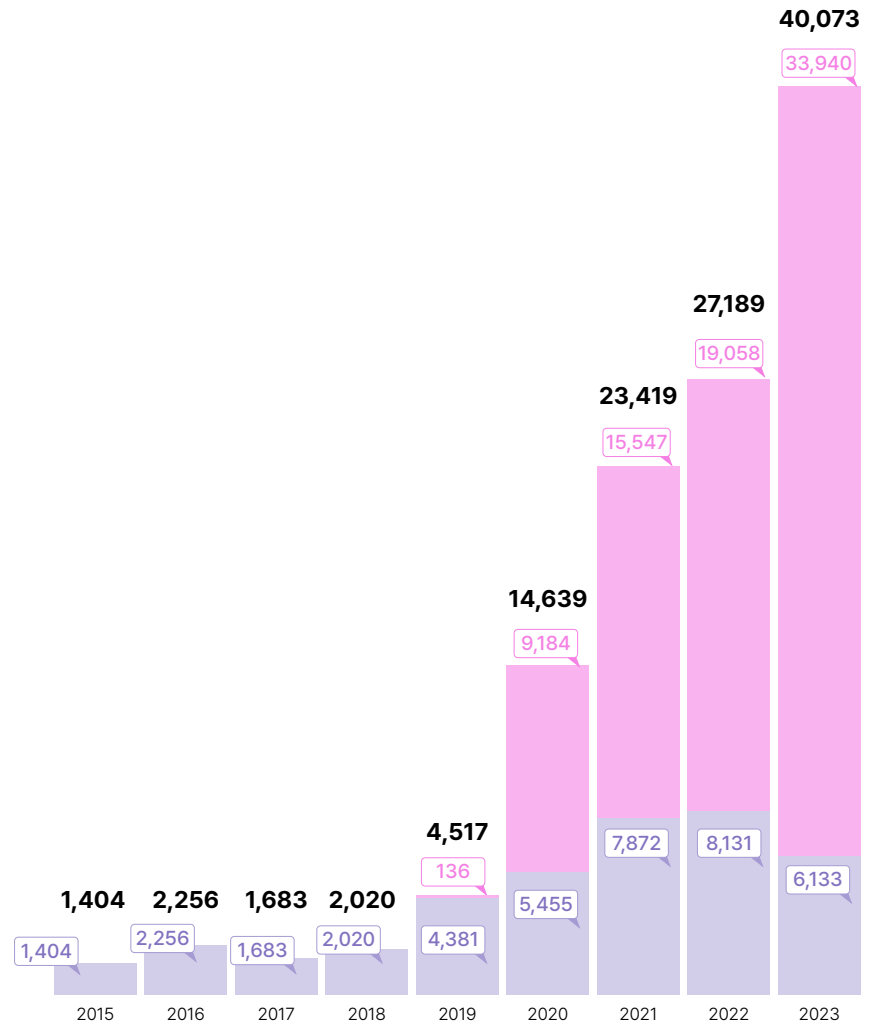
예술인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모든 강좌에 수어·문자 통역을 도입하여, 예술인이자 장애인에게 장애 부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

습니다. 모든 분야의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계약 지식을 담은 '예술 계약의 이해' 강좌를 신설하였고, 대상자별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예술인을 둘러싼 예술환경과 최신 법·제도 정보로 이뤄진 다양한 강좌를 상시 학습이 가능한 이러닝 시스템으로 제공하여 2023년에만 총 33,940명이 온라인 교육을 수강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946회의 찾아가는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온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누적 77,86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활용과 더불어 예술인의 실무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온라인 교육
■ 찾아가는 교육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예술활동 중 생길 수 있는 예술인의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 및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사업입니다. 전국의 심리상담 전문기관 및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예술인 맞춤형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창작의욕을 높이고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술인은 엄선된 심리상담 지정기관에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심리검사 및 최대 12회의 개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에는 전국의 40개의 심리상담 기관을 지정해 운영했습니다.

2023년에는 개인심리상담 신규신청(지원) 1,433명을 포함해 총 1,716명을 지원했습니다. 개인 심리상담을 종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소그룹 집단상담을 98회 운영하여 417명의 예술인이 참여, 예술인 간 심리적 지지와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에 심리적 어려움으로 자살을 고민하는 예술인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의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의 역할에 대해 배우는 '예술인 자살예방 교육'을 4회 운영하여 123명의 예술인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참여형 프로그램을 추가한 교육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예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술인 자살예방 교육'은 2021년 도입한 것으로, 예술인들이 서로의 심리적 어려움을 알아보고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과 상담가가 기록한 그 동안의 심

리상담 사례를 모은 <내마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책자를 제작하여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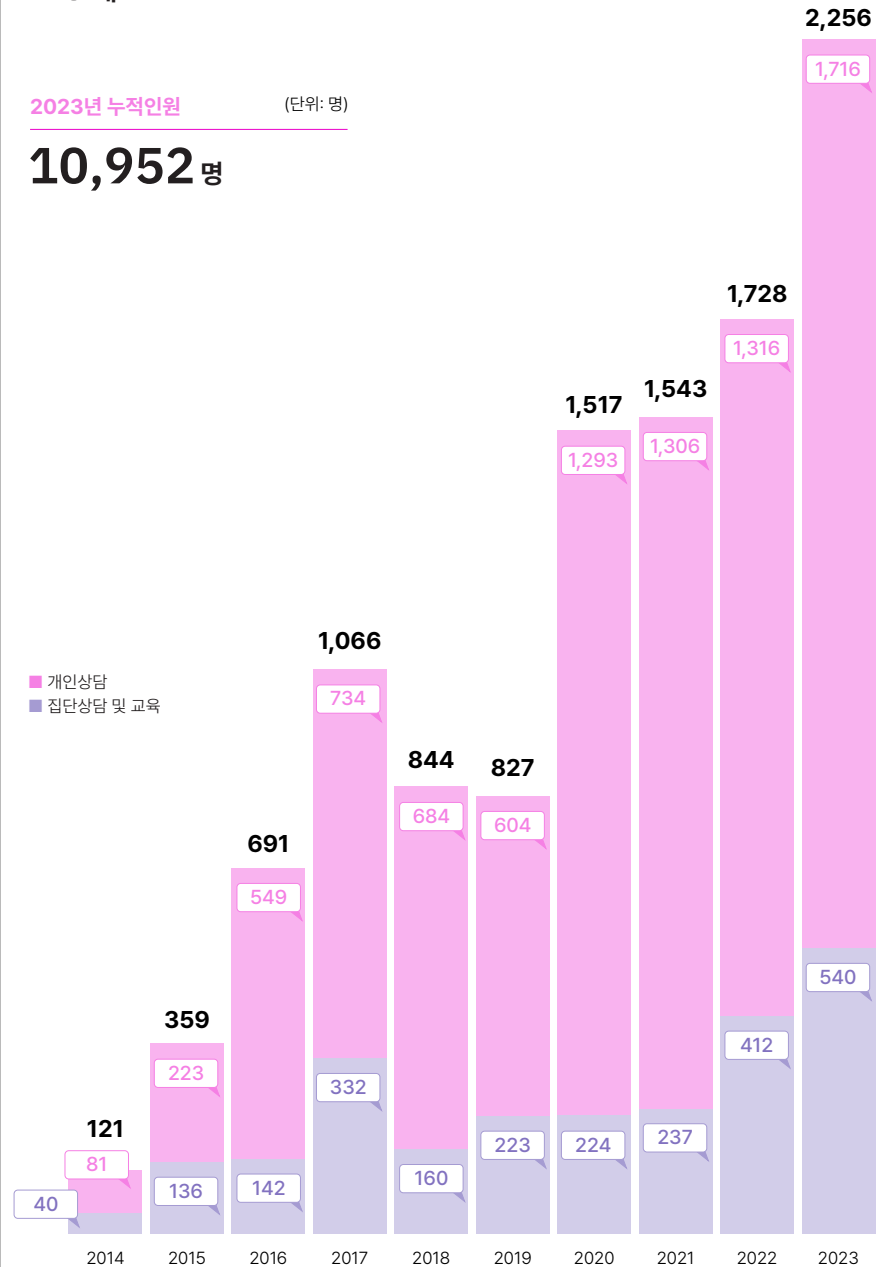


전국 심리상담 지정기관

40 개

2023년 누적인원 (단위: 명)

10,952 명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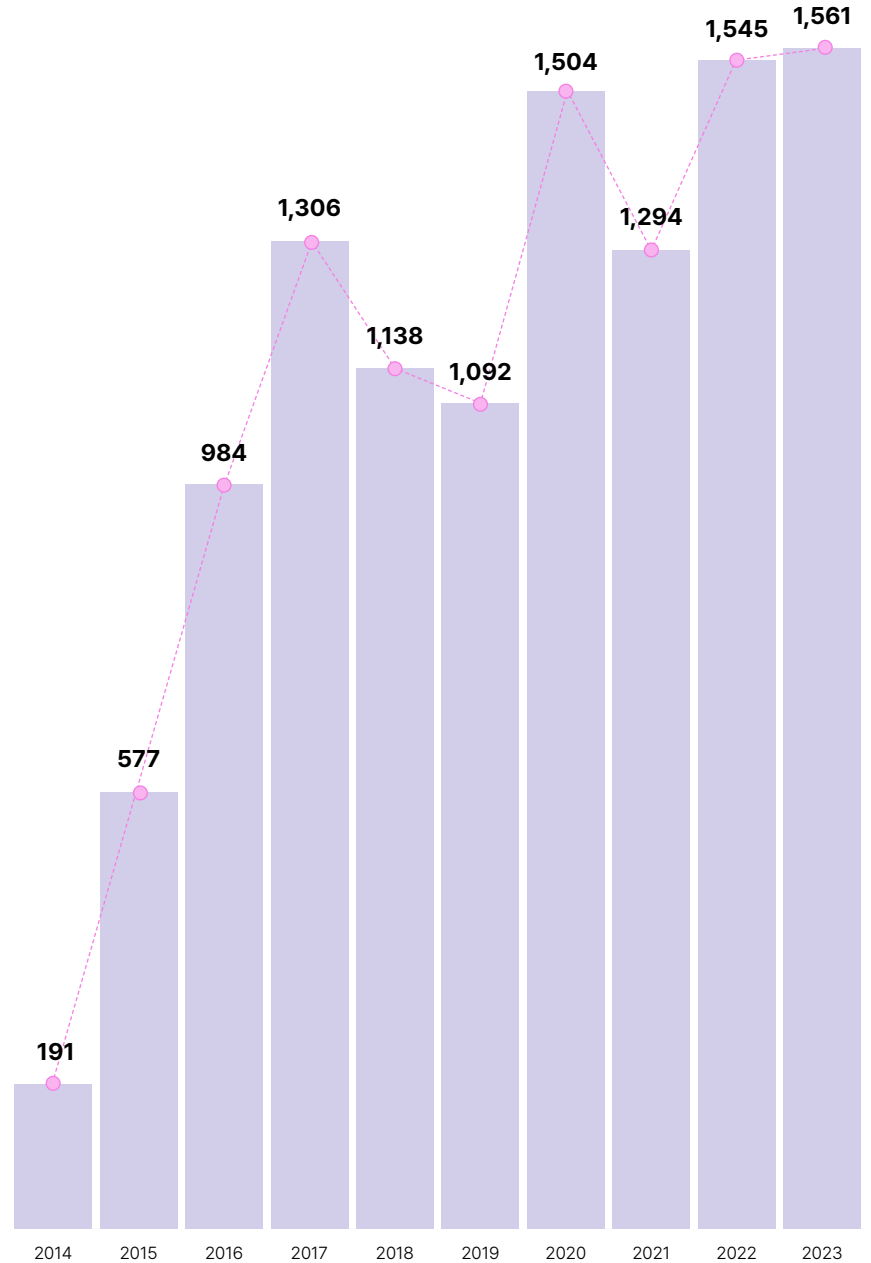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예술활동에 대한 표준계약을 체결한 기간 내에 납부한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재단은 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여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에 기여하였으며, 표준계약 체결 조건부 지원을 통해 공정한 계약체결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표준계약을 체결한 예술인과 문화예술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30~50%를 지원하고, 프리랜서 예술인이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보험료의 50%를 지원했습니다.

2023년 누적 지원인원 (단위: 명)

11,192명



▲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운영

2020년 12월 10일에 예술인 고용보험이 도입된 이후, 재단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홍보,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술현장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창구를 운영하며 연중상시로 온오프라인 상담과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2023년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를 통해 이루어진 상담건수는 총 3,640건이며 30회의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예술현장에 직접 찾아가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상세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안내책자, 고용보험료 모의계산기 등의 온오프라인 안내 콘텐츠를 제작해 예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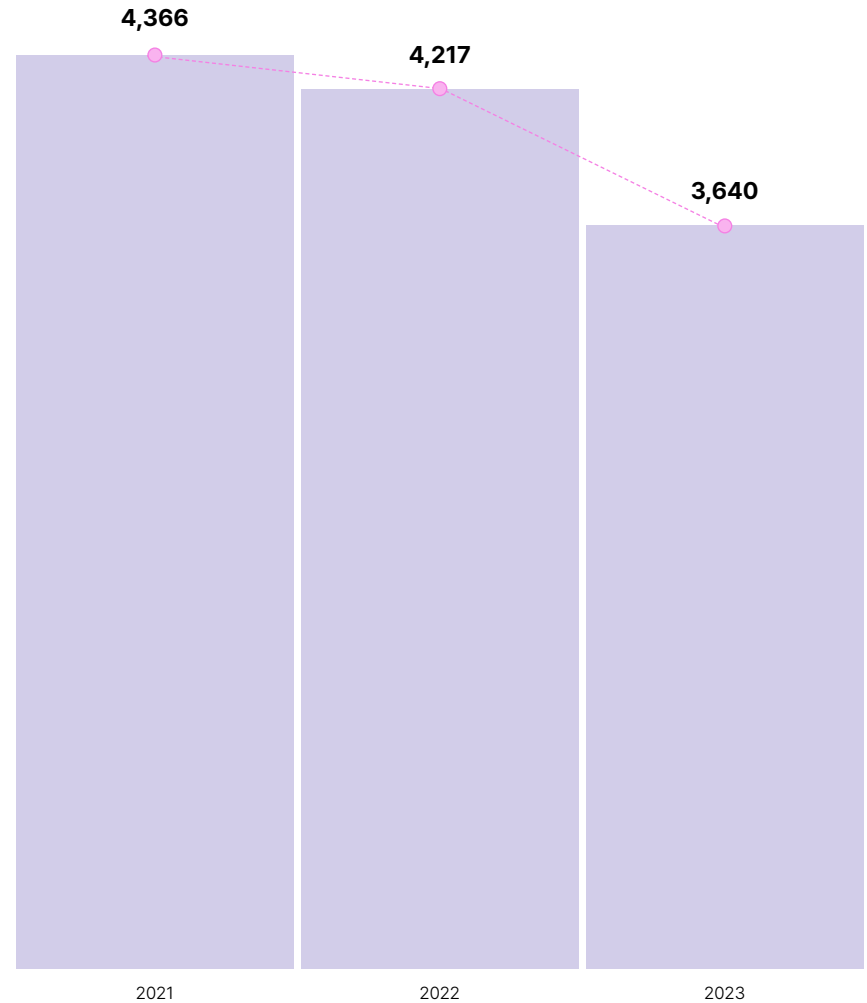
찾아가는 설명회 건수

누적 **81** 회



예술인 고용보험 상담 건수

(단위: 건)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지원

재단은 2012년 11월, 「예술인 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과 함께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인은 '중소기업사업주' 방식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1등급~12등급의 보험료 중 원하는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단은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및 해지, 증명원 발급 등 산재보험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산재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예술인들의 산재보험료를 50~90% 환급 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예술인 산재보험 찾아가는 설명회를 16회 진행하고, 안내책자, 리플릿, 카드뉴스, 홍보영상 등을 제작하여 산재보험 제도의 홍보와 이해도 제고를 위해 힘썼습니다.

또한 <예술인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와 협·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예술인의 예술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한 예술활동을 위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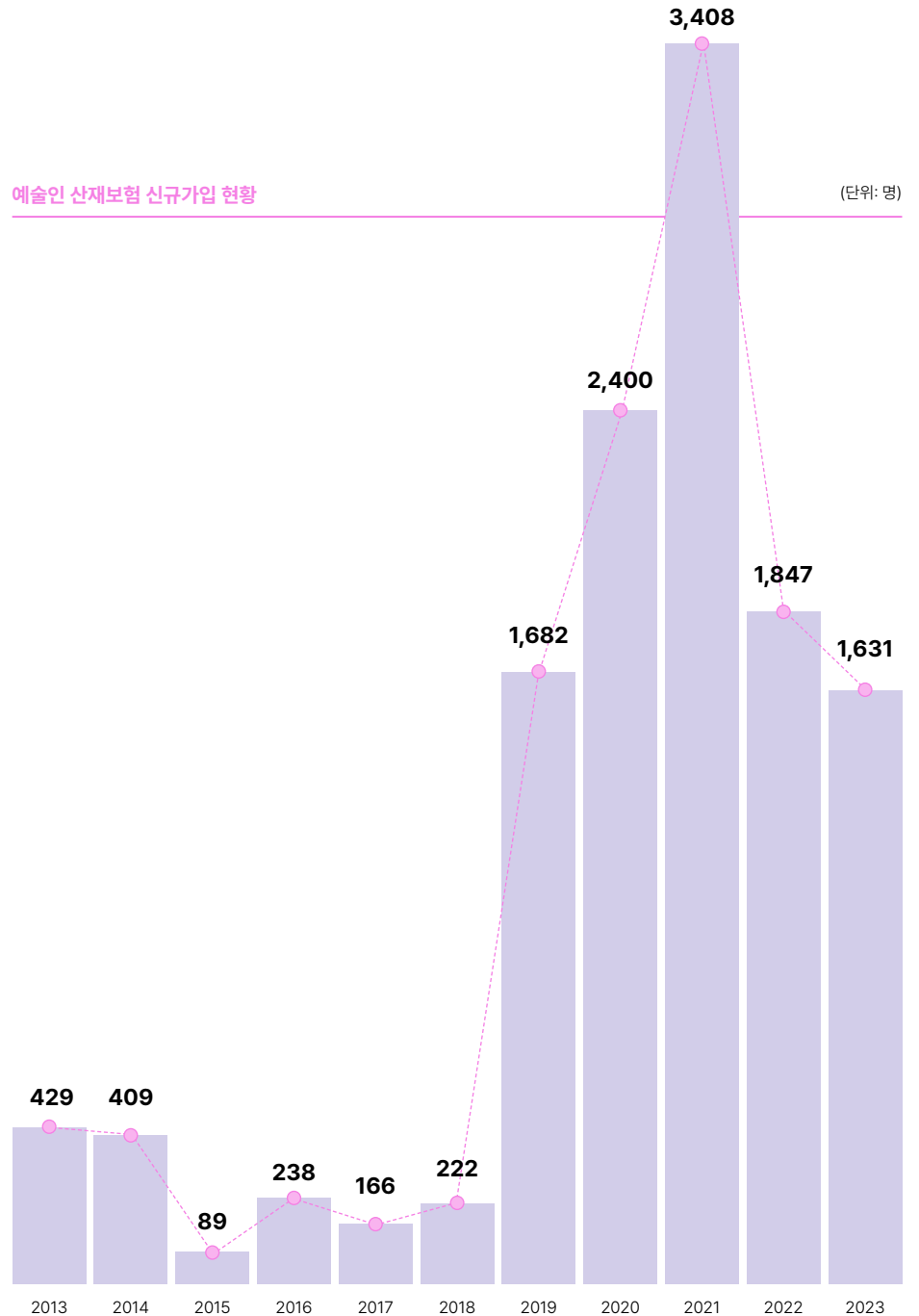
2023년 예술인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는 1,631명으로, 누적 가입인원은 12,521명입니다.

2023년 누적인원

12,521명



예술인 산재보험 신규가입 현황





예술인 의료비 지원

2013년부터 시행된 <예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예술활동으로의 복귀와 지속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 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의료비를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중증질환을 우선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80% 이하로 거주지역별 보유자산이 기준 이하인 예술인입니다.

사업이 시작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534명의 예술인들이 의료비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가 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됨에 따라, 예술인만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필요 없을 만큼 의료안전망이 확충되어 2024년부터 운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구분	문학	미술	사진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합계
2013 /2014	9	12	1	6	1	-	21	12	7	1	70
2015	1	9	-	3	-	-	-	5	-	-	18
2016	1	7	2	5	-	-	-	4	-	1	20
2017	11	16	1	7	3	-	5	16	1	1	61
2018	4	1	-	5	-	1	4	4	-	1	20
2019	4	9	-	4	2	1	8	7	-	1	36
2020	17	8	3	11	2	2	3	5	3	2	56
2021	10	20	2	17	1	2	4	7	2	1	66
2022	20	27	3	17	5	1	10	8	2	2	95
2023	24	24	1	24	1	2	3	9	3	1	92
합계	101	133	13	99	15	9	58	77	18	11	534

의료비 지원 누적 인원

534명



▲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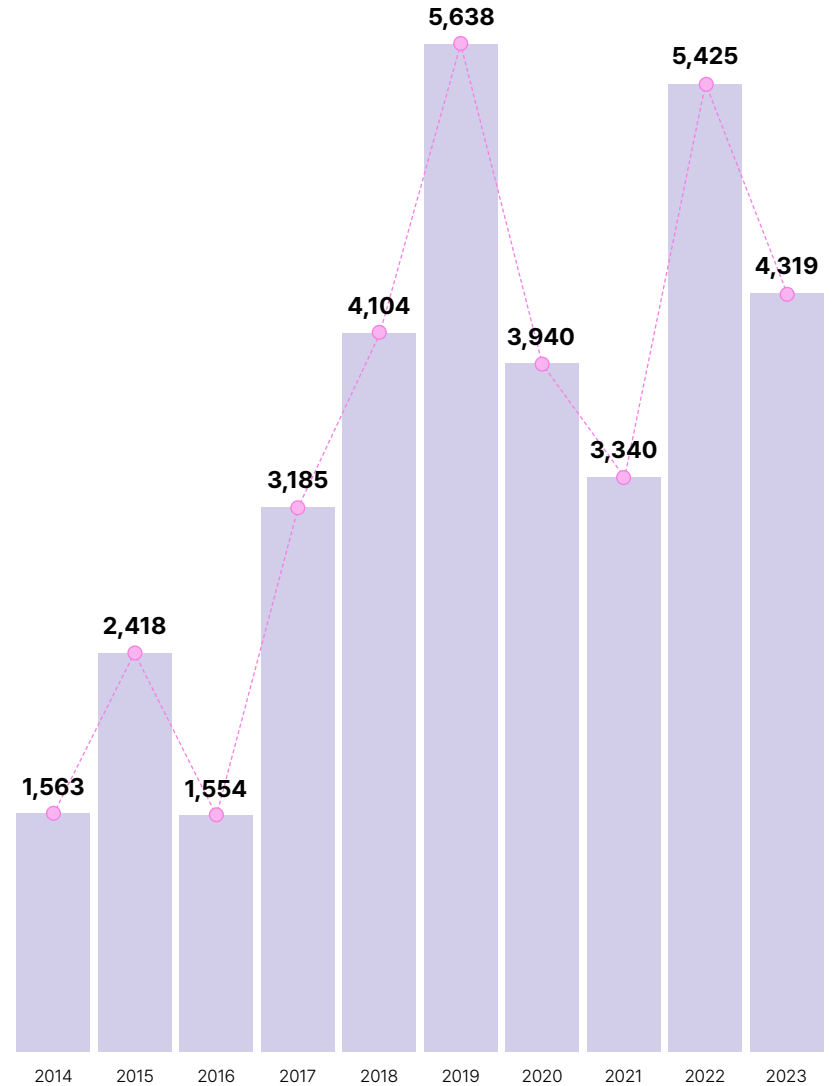
예술인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시설 이용 유아와 아동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과 전문가 시간제 돌봄서비스, 안정적 보육서비스, 양질의 예술교육 콘텐츠, 연령 통합 보육으로 긍정적 사회성이 형성되도록 합니다.

대학로와 마포 총 2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돌봄센터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야간 및 휴일·공휴일에도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인에게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창작활동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3년 누적 이용인원

(단위: 명)

35,486명



돌봄센터



총 2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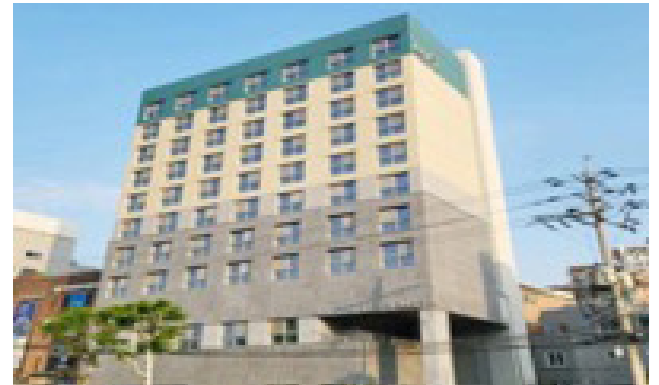
반디돌봄센터(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예술인자녀돌봄센터(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 예술인 주거공간 지원사업(신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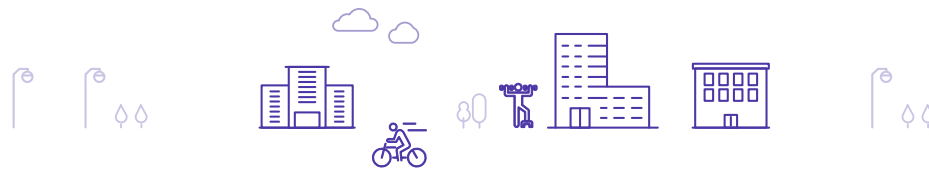
예술인 주거공간 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부유한 주택 중 운영기관이 기획하고 제안한 테마에 맞는 적절한 주거공간을 공급받아, 운영기관이 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선발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예술인의 활동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중 가격의 5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 커뮤니티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지원합니다.

2023년 현재 공급되어 운영하는 곳은 서초동 예술인 임대주택 "그루하우스"로 총 60호가 입주 중이며, 2024년 서대문구 북가좌동 예술인 임대주택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초동 예술인 임대주택 그루하우스



예술활동증명 Validation of Artistic Activities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상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로, 예술인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조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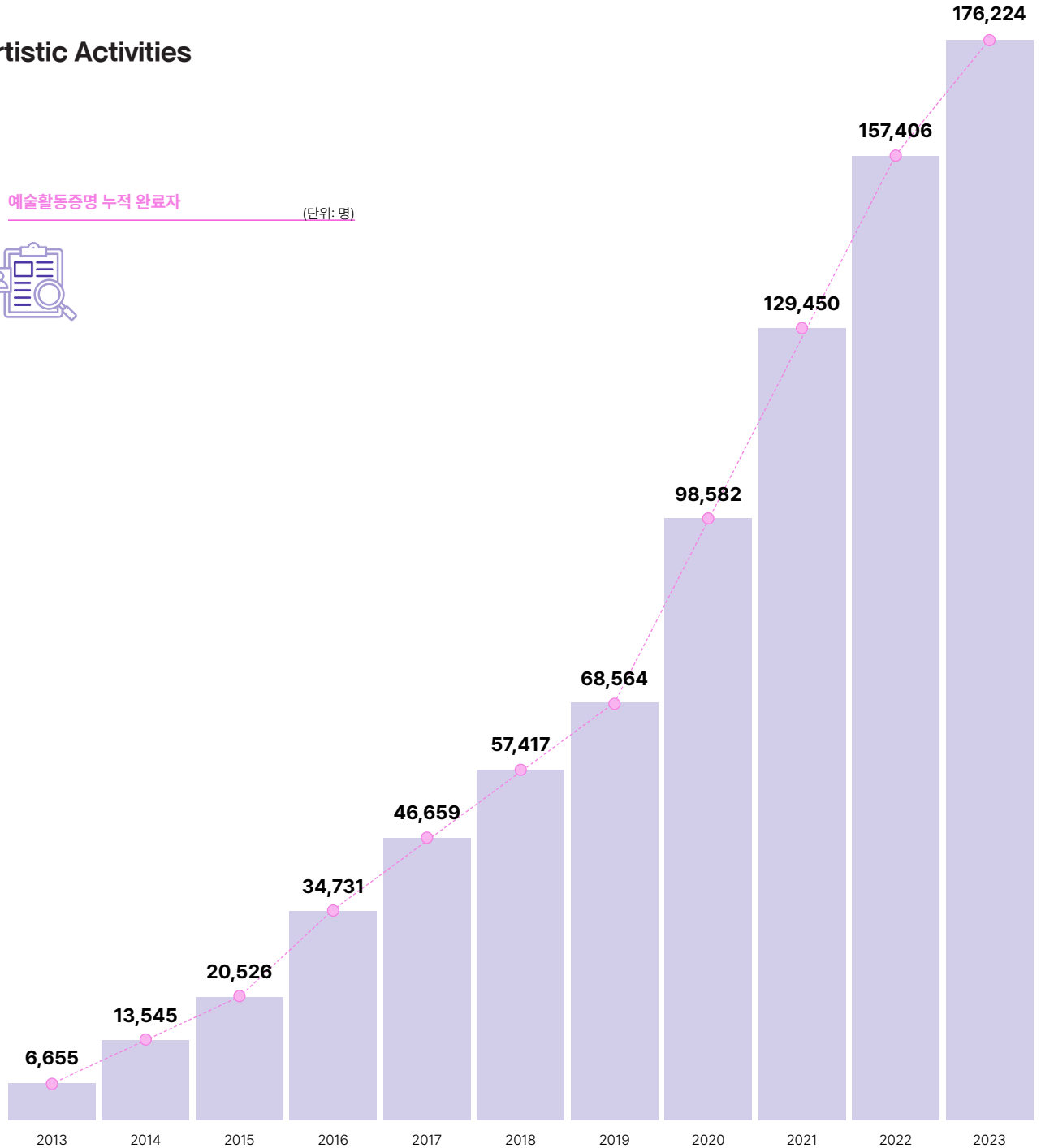
재단은 11개 예술 분야 (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활동 실적과 예술활동 수입에 대한 확인 자료를 제출하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2023년, 예술활동증명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예술인들을 위해 재난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고 분야별로 상이했던 실적기준과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였으며 누적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 유효자에게 재신청을 면제하는 등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여 예술인의 신청 편의성을 높이고 소요기간 또한 기존 20주에서 15주로 단축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예술인의 관심과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제도 활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2023년에는 누적 완료자수 176,224명을 기록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누적 완료자 (단위: 명)





예술인패스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예술인패스는 예술인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해 자긍심을 높이고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발급되는 공연, 전시, 생활 속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특히나 2023년에는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예술인패스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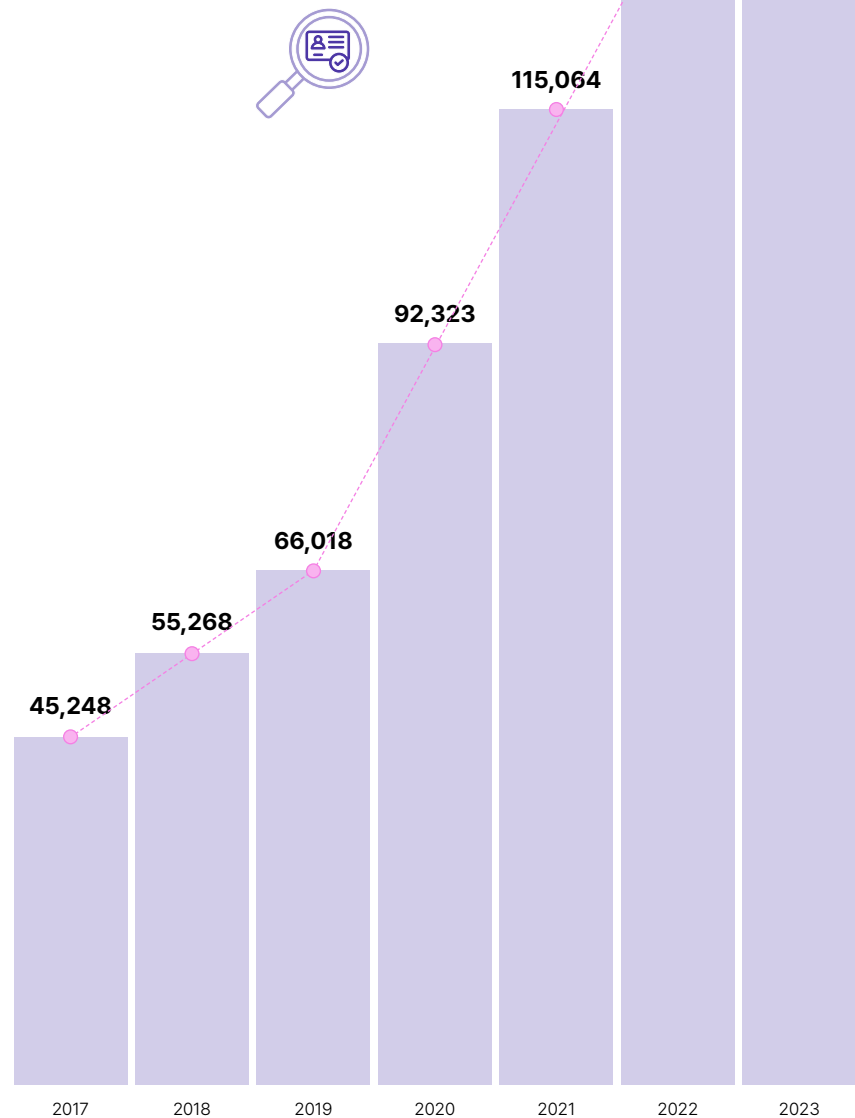
먼저 예술인패스 카드의 유효기간을 없애 한번 발급받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이라도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했거나 예술인패스를 발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현재 만료되었더라도 예술인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좀 더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예술인패스 체크카드를 런칭해 전용 할인물, 산재보험 가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예술인패스 누적 발급 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3년 누적 153,588명이 예술인패스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예술인패스 누적 발급 현황

(단위: 명)



예술인패스 카드 발급 대상 ('23.9.4.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 번이라도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유효자, 만료자 모두) *신진예술인 포함 ② 한 번이라도 예술인패스를 발급받았던 사람(현재 만료되었더라도 재발급 가능) ③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④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예술인패스 카드 이미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사업>은 대부분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예술인들이 시중은행 등 금융권에 비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사업입니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어 생활안정자금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하였으며, 2020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총 210억 원 규모로 운용되었으며 '생활안정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 두 가지 상품을 운영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연 2.5%의 이율로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긴급생활자금 용도로 신청할 수 있는 소액 대출상품으로 한도는 최대 7백만원(긴급생활자금 최대 5백만원)입니다. 또한 1.95%의 이율로 최고 1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운영함으로써 저소득 예술인의 주거안정 및 창작공간 확보를 도모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사업>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은 예술인은 총 2,653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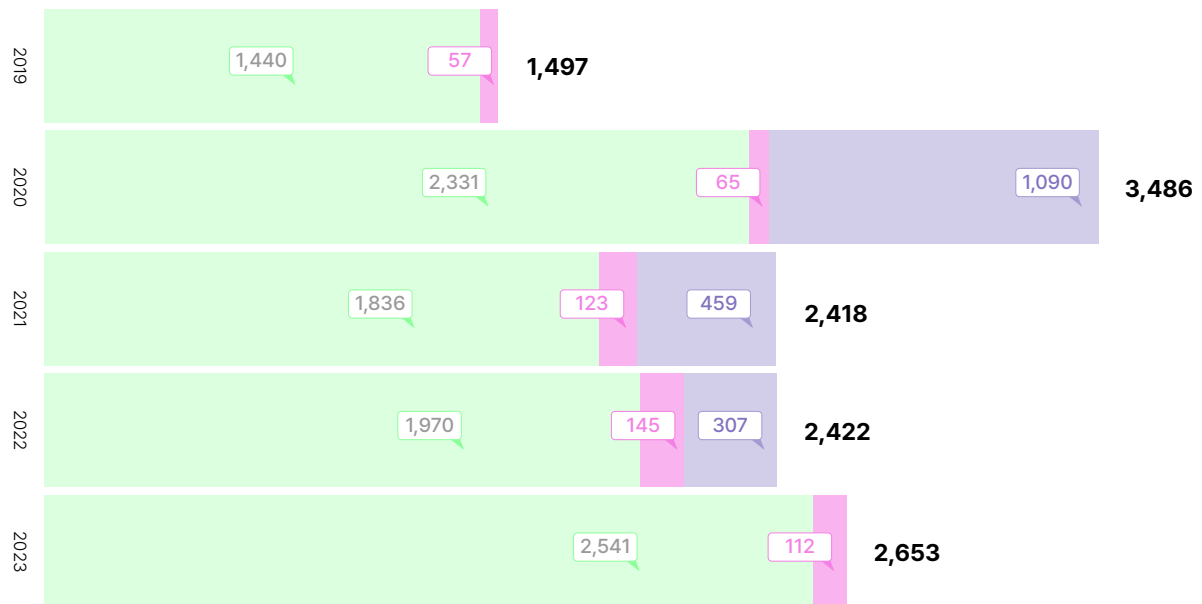
재단은 사업을 통해 대출을 제공하는 한편, 예술인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하여 예술인의 경제적 자립과 자생력 회복을 지원합니다. 용자를 위한 필수사항으로 '금융교육 이수' 요건을 두었고, 이와 별도로 예술인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신용관리,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임대차 보호법, 금융사기 예방 등)를 제공했습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사업 참여 예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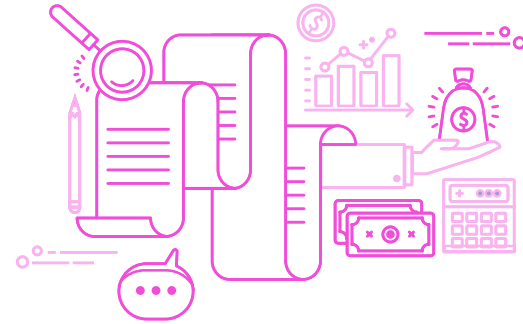
(단위: 건)

- 생활안정자금
- 전세자금대출
- 코로나19 특별용자



2023년 예결산 현황

예결산 현황



2023년 세입			
구분		예산	결산
합계		109,168	108,367
정부지원	국고보조금	86,631	85,993
	체육진흥기금	345	322
	문예진흥기금	22,087	21,947
기타		105	105

(단위: 백만원)

2023년 세출			
구분		예산	결산
합계		109,168	108,367
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인건비	2,283	2,283
	경상비	1,803	1,582
	합계	4,086	3,865
직업역량강화		8,726	8,711
창작역량강화		68,904	68,654
불공정관행개선 지원		3,541	3,427
예술인 기초생활 보장지원		1,374	1,336
예술인 전문성 및 역량강화		345	322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22,087	21,947
기타		105	105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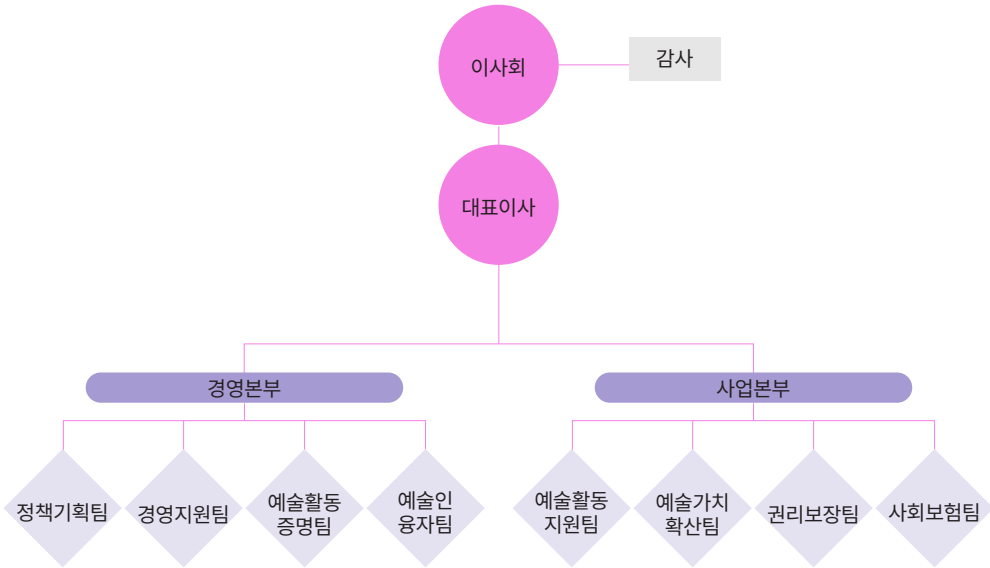
연혁



조직 및 부서별 업무내용

조직도

조직 구성: 2본부 8팀



부서별 업무내용

구분	주요업무	
경영본부	정책기획팀	1. 이사회·규정 2. 예산 3. 대외협력 4. 홍보·출판 5. 전략기획·평가·경영활동 6. 연구 및 정책개발(위원회 운영) 7. 기부금 관리
	경영지원팀	1. 대외·감사 2. 인사·노무·복무·교육 3. 계약총무 4. 시설관리·보안·안전보건 5. 재무·회계·세무 6. 정보화·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예술활동증명팀	1. 예술활동증명 제도 운영 및 관리 2. 민원관리
	예술인용자팀	1.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사업 2. 예술인패스
사업본부	예술활동지원팀	1.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2.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예술가치확산팀	1.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협업/기획) 2.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지역) 3. 예술인 역량강화
	권리보장팀	1. 예술인신문고(예술인권리침해행위,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창구 운영 및 피해지원 2. 법률상담·컨설팅 3. 예술인 심리상담 4. 서면계약 위반 신고창구 및 전자계약 체결 서비스 5.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사회보험팀	1. 예술인 산재보험 2.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3.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운영 4. 예술인 주거공간 지원 5.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이사회

이사회 구성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 당연직 2명, 선임직 9명, 감사 1명

직 위	이 름	주요경력
 이사장(비상임)	김영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2022.2.15.~2025.2.14.)
 대표이사	박영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2021.4.1.~2024.4.15.)
 이사(비상임)	권남희	(사)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회장
	김병호	스쿨씨어터협동조합 이사장
	김영주	협성대 교수(가구디자인학과)
	김용환	前추계예대 교양학부장/국제교육센터장
	김인희	발레STP협동조합 이사장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
	이용진	前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천재현	(사)정가악회 대표이사
	한상정	인천대학교 교수(불어불문)
 당연직 이사(비상임)	김수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장(2022.11.11.~2023.5.7.)
	고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장(2023.5.8.~2023.10.30.)
	최원배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장 직무대리(2023.11.6.~2023.12.17.)
	정슬기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장(2023.12.18)
	송시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감사(비상임)	정희경	메리츠자산운용(주) 수석

202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발행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 획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책기획팀
주 소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전 화 02-3668-0200
누리집 www.kawf.kr

